

지역 소식통

정읍시, 뱀장어·메기 치어 동진천 방류

정읍시는 17일 동진천에 뱀장어 치어 8천마, 메기 치어 38만마를 방류하였다.

이번에 방류한 뱀장어, 메기 치어는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마친 건강한 종자만을 선별하였으며, 방류 행사에는 어가, 수산인 단체,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전북도와 정읍시에서는 "내수면 어족자원 확충과 지역 특성에 적합한 수산자원 증식을 꾀함은 물론 사라져 가는 토종어류 보존 등 자연생태 환경 복원을 위하여 지난 2019년부터 방류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밝혔으며, 앞으로 4년간 지속되는 방류사업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하여 방류효과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방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치어가 성어가 될 때까지 생육환경을 잘 보존하고 불법어업 행위로 인한 보호어종 및 어란물고기까지 포획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 모두가 관리 감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 변산면 여성단체협
근농인재육성장학금 기탁

변산면 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효숙)는 5.4~5.6. 마실축제가간동안 먹거리 부스를 운영한 수익금 100만원을 지역인재육성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김효숙 회장은 "뜻은 날씨에도 회원들이 4년 만에 열린 마실축제를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고 관광객들에게 맛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회원들이 함께 노력했다"며 "힘들게 얻은 수익금을 귀한 곳에 사용하자는 회원들의 뜻에 따라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기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권익현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은 "많은 비가 내려 힘든 환경에서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신 회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수익금까지 기탁해 주셔서 매우 기쁘다"며 "소중한 기부금을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잘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 곰소염전 초채염제 개최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0호... 염부 안녕 · 소금생산 풍년 기원 제례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0호로 지정된 곰소염전(부안군 진서면 소재)에서 7일 초채염제가 열렸다.

초채염제는 염전에서 그해의 첫 소금을 채취하는 날에 염부의 안녕과 소금생산의 풍년을 기원하며 지내는 제례이다.

이날 행사는 천일염 생산자인 남선협회 어업인 단체, 지역주민 등이 참석하여 안녕과 풍년을 기원했다.

하늘과 태양 아래 자연과 사람이 정성으로 만들어내는 곰소 천일염은



하늘과 태양 아래 자연과 사람이 정성으로 만들어내는 곰소 천일염은

담사르 청정갯벌 바닷물을 태양열로 증발·건조시켜 만들어 깨끗하고 천연미네랄이 풍부해 짠맛보다 단맛이 나는 고품질 천일염으로 유명하다.

특히 쓴맛을 내는 간수성분을 원천적으로 제거하여 생산하므로 소비자가 천일염 구입 후 별도로 장기간 저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곰소천일염만의 특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대풍을 이루어 어업인이 활짝 웃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국가중요어업유산인 곰소 천일염업을 잘 발전하고 활용해 어촌지역의 활력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기자



최태성 한국사 스타강사가 "고창은 동학농민혁명 최고 성지로, 위대한 지역의 역사에 관심 갖고, 더욱 적극적으로 일러나기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창은 동학농민혁명 최고 성지"

최태성 한국사 스타강사 초청 청소년대상 특강

최태성 한국사 스타강사가 "고창은 동학농민혁명 최고 성지로, 위대한 지역의 역사에 관심 갖고, 더욱 적극적으로 일러나기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창군은 17일 오전 고창문화회관에서 (사)고창동학농민기념사업회(이사장 진윤식) 주관으로 관내 청소년대상 동학농민혁명 특강을 열었다.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의의를 이해하고 전통준장군의 후손으로서 자긍심과 애항심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했다.

최태성 강사는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과정, 동학농민혁명의 전국적 봉기의 기폭제가 된 무장기포지, 동학농민혁명의 최고지도자인 전통준장군 생가터, 손화중 도사묘와 피체지 등 관내 동학농민혁명 핵심유적지를 소개했다.

특히 특강에 앞서 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무장포고문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해 눈

길을 끌었다. 최태성 강사는 "무장포고문은 동학농민혁명의 대의명분을 함축해 전라도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격문을 보내 농민군들의 합류를 촉발시켰다"며 "세계기록유산 등재 가치가 충분하다"고 힘을 보탰다.

진윤식 (사)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 선양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오늘처럼 강연 등의 교육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우리 청소년들이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올바르게 배우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과 선양사업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병해충 방제 · 물관리 등 생육 관리 철저" 당부

정읍시 농기센터, 마늘 · 양파 생육 후기 관리... 2차 감염 방지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마늘, 양파의 수확량 증대를 위해 구비대기가 시작되는 생육 후기 물관리 및 병해충 방제를 당부하였다.

생육 후기 마늘과 양파는 토양이 건조하면 뿌리가 토양에 있는 양분 흡수를 할 수 없어 수량이 감소하므로 7~10일 간격으로 2~3회 물대기를 해주거나 스프링클러 등을 이용하여 관수를 해주면 구 비대를 조정하는 데 효과가 있다.

기온상승은 후기 병해충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생육 후기 철저한 병해충 예방 및 방제에도 주의를 기울여

야 하는데 노균병이나 잎마름병, 흑색 씩음균해병, 고지리파리 등 병해충이 발생 되면 작물생육에 지장을 주고 수확량 감소의 원인이 된다.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주로 발생하는 노균병은 평균기온 15°C일 때 많이 발생하고 잎이 연한 연두색으로 변하면서 아래로 처지는 증상을 보이는데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감염증을 발견하면 즉시 제거해야 2차 감염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잎마름병은 주로 생육 후기 고온다습한 조건에서 발생하고, 잎끝에 황백색의 반점이 생기거나 잎끝이 말

라 죽는 증상을 보이고, 고지리파리가 발생하면 아랫잎부터 노랗게 말라 죽게 하므로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포기를 뽑아내고 애벌레를 죽인 다음 적용 방제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이러한 병 발생은 적용약제만으로는 완전 방제가 힘들며 태양열 소독이나 2~3년 간격으로 돌려짓기를 통해 병원균의 밀도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김원심 기술보급과장은 "양파와 마늘은 생육 후기 철저한 물관리와 병해충 예방이 중요한 만큼 생산량 증대를 위해 지속적인 예찰과 예방적 방제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야외운동기구 현황 파악 · 집중 점검

정읍시가 지역 내 설치된 야외운동기구 현황 파악과 집중 점검에 나섰다.

최근 대구에서 야외 운동기구인 '거꾸로 매달리기(거꾸리)'를 이용하다가 발생한 안전사고에 행정기관이 손해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 정읍시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역 내에는 688개소에 8종(양팔출렁다리, 허리롤리기, 상체근육풀기, 물결타기, 하늘걸기, 등지압기, 오금퍼기, 윗몸일으키기, 거꾸로 매달리기) 1,932개의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돼 있다. 이중 거꾸리는 29개이다.

시는 현황 파악과 함께 이용에 위험요인은 없는지 집중 점검하고, 이용시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거꾸리 이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후 미끄럼 방지 시설과 함께 바닥에 매트 등의 충격 완화 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또 운동기구마다 주의 안내문도 부착하고 있다. 거꾸리 부착은 이미 마쳤고 앞으로 전 운동기구에 부착할 방침이다.

거꾸리 이용 주의 안내문은 △등받이판 앞에서 서서 보호대에 두 발을 고정할 것 △원형 가이드라인(손잡이)을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 주의 사항 안내

운동 방법
동팔이판 앞에 서서 보호대에 두 발을 고정하고 원형 가이드라인(손잡이)을 꼭 잡고 등반을 할 때 천천히 가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경고
- 사용법을 먼저 숙지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노약자나 환자는 사고 위험이 있으니 사용을 금합니다.
*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정읍 시 -

한편 이학수 시장은 지난 15일 간부회의를 통해 "각종 야외운동기구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이용 시 주의사항을 안내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관계 부서에 지시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제주시 농촌지도자회 중부지회 고창 방문

고창군은 17일 농촌지도자 제주시 중부지회에서 회원 30여명이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를 기념해 고창군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농촌지도자 제주시 중부지회 회원 30여명은 고창군 농업기술센터를 견학하면서 고창지역 농산물에 대한 설명과 고창군 농업 관련 현황을 청취했다.

또 고창 치유농장을 방문하여 청정 지역 고창에서 직접 재배한 허브차와 농산물로 심신을 회복하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고창군과 제주시 농촌지도자연합회는 지난해 10월 25일 자매결연 행사를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었다. 양 지역은 △삼호 지역의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촉진 △선진농업 기술교류 및 우량종자 자육교환 △조식회합 및 영농정보 공유 교류행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